

악마의 상징이었던 줄무늬, 보편적 무늬로 유행하기까지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스트라이프, 혐오와 매혹 사이

미셸 파스투로 지음, 고훈만 옮김

“중세 사람들은 줄무늬가 있는 표면이 바탕과 무늬의 구분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보는 사람을 농간한다고 여겼다. 10-11세기에 이미지를 읽는 방식대로 바탕의 면에서 시작해서 관찰자의 눈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달리 말하면 겹을 구분해서 이미지를 읽어 내는 방식이 줄무늬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상 구조’에 익숙해 있던 중세 사람들에게 줄무늬는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바탕과 무늬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무늬였다. 따라서 그들은 줄무늬를 정상이 아닌 것, 거의 악마적인 것으로 여겼다.”(본문 중에서)

줄무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취향의 문제다. 그러나 만약 중세시대에 줄무늬를 좋아했다면 이단아 취급을 받기 십상이었다. 중세의 사료나 문학작품, 도상 등에는 줄무늬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소외되거나 배척된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회질서나 풍속을 어지럽히는 불온한 사람들로 취급받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악마로 취급당하기도 했다. 부정적인 일면을 부각시키는 데 줄무늬 옷만한 것이 없었다. 중세 12-13세기에는 줄무늬 옷을 어둡고 경멸의 상징으로 기호화하는 자료들이 넘쳐났다.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스트라이프, 혐오와 매혹 사이’는 줄무늬의 역사와 그것과 결부된 상징을 조망하는 책이다. 중세 문장학의 대가이자 색채 분야 국제 전문가인 미셸 파스투로가 저자다.

그는 유럽사회의 상징과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프랑스 문장학 및 인장학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검정의 역사’, ‘초록의 역사’, ‘빨강의 역사’ 등 색의 역사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풀이해 호평을 받았다.

스트라이프가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지만 중세에는 대표적인 악마의 무늬였다. 종교회의에서 성직자들에게 보낸 명령서에는 줄무늬 옷의 착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 사례가 있다. 13세기 프랑스 루이 9세와 귀국한 카르멜회 수도사들이 줄무늬 망토를 입고 있었다. 하필 그 무늬가 이슬람교도들이 입는 줄무늬 젤라바의 일종으로 간주됐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음을 불문가지다.

중세인들은 바탕과 무늬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옷에 선입견이 있었다. 시선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유였다. 그들은 물체를 하나의 면 순서대로 보고 해석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중세가 지나고 근대에 접어들면서 반전이 일어난다. 과거 금기시되다시피 했던 가로 줄무늬는 쇠퇴하고 세로 줄무늬가 인기를 끌었다. 줄무늬가 다채롭게 활용되면서 계층 구분의 기능은 점차 의미가 없어진다.

일상은 물론 축제에서 줄무늬 옷을 입는 사람들이 늘었으며 이국풍의 줄무늬 옷을 즐겨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빅토리아 왕조 시대에는 호텔과 객실 담당자 지배인의 제복이 노랑과 검정의 세로 줄무늬 조끼였다. 또한 16세기부터는 줄무늬가 귀족 계급의 품위를 지닌 무늬로 각광을 받았다.

낭만주의 시대 도래로 줄무늬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게 된다. 과거의 경멸적 이미지는 지워진 대신에 정치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줄무늬가 혁명의 상징 무늬로 인식되면서 미국의 성조기와 더불어 여러 국가에 등장한다.

특히 뱃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머린 스트라이프는 수영복, 파라솔 등에 활용되며 확산된다. 디자이너들의 패션 쇼에도 스트라이프가 등장했으며 피카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트라이프 옷을 착용하고 대중들 앞에 섰다.

저자는 줄무늬가 자연의 기호보다는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기호라는 관점을 취한다. 인간이 주위에 흔적을 내거나 사물에 새겨 넣거나 다른 이들에게 강제로 요구한 것이라는 의미다.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줄무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코드다. 관리와 통제 의지를 함의한다.

〈미술문화·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색 배합은 줄무늬 가운데 최상의 형태로 간주되었다. 사진은 16~17세기 유행한 가면 희극에서 등장인물들이 스트라이프 옷을 입고 있는 장면. 지오바니 도메니코 페레티의 ‘아우렐리아노와 콜롬비나’

〈미술문화 제공〉

소금의 진실과 건강

조기성 지음

소금에 대한 관점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소금 섭취를 적당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동의를 하는 편이다.

그러나 일반의 견해와 달리 과학적인 방식과 의학, 역사, 영양학, 우리 몸의 순환원리 등을 소금 섭취에 따른 소금-혈압 기전을 토대로 소금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해온 이가 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과 관세청, 동력자원부 사무관을 역임한 조기성 서울과학기술대 산학협력교수이자 주인공. 조 교수는 ‘소금의 진실과 건강’이라는 책에서 저염식의 위험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춘다. 세계의 바닷물과 암염, 천일염, 죽염에 함유된 미네랄을 연구하고 순소금처럼 혈압이 올라가는지 등을 동식물을 통해 분석했다.

“미네랄이 없는 순소금(정제염)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지만 천일염, 죽염은 몸이 거부하는 것을 거슬러 짜게 섭취하지 않는 한 혈압이 올라가지 않았으며 서구에서 실험했던 순소금과 한국의 천일염, 죽염이 혈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랐다.”

저자는 미네랄이 없는 정제염은 나트륨과 염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체내에 많고 적음에 따라 혈액의 균형이 깨져 부작용이 따른다고 봤다. 반면 천일염, 죽염은 미네랄이 풍부해 혈액과 장기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즉, 짠 것보다 싱겁게 먹을 때 포괄은 체내에 없는 미네랄을 재흡수하기 위해 무리를 한 나머지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싱거운 것보다 짠 것이 몸에 더 좋다는 의미다. 저자는 “소금의 섭취량의 진실은 싱겁지도 짜지도 않은 그 사이에 있다”고 부연한다.

〈책과나무·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역사와 유토피아

에밀 시오랑 지음, 김정숙 옮김

1950년대 후반 당시의 정치와 역사, 유토피아에 대한 도발적인 견해를 담은 책 ‘역사와 유토피아’는 프랑스어권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번에 재출간된 ‘역사와 유토피아’는 정직한 허무주의자였던 저자의 문명 비평에 관한 책이다.

루마니아 출신의 에밀 시오랑은 철학자이자 작가로 활동했으며 루마니아 왕립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니체와 쇼펜하우어에 심취했던 그는 ‘독설의 광세’, ‘존재의 유혹’, ‘해체의 개질’ 등 의미있는 책을 펴냈다.

이번 ‘역사와 유토피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 비교뿐 아니라 권력과 역사의 흐름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역사는 정해진 방향이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간다’로 압축된다. 허무주의 철학이 일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인간은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 지상에 나름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꿈을 견지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욕망에 대해 단호히 부정을 한다. 이상사회에 대한 추구하고 완전함은 사실은 결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견해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시기 수많은 유토피아를 그린 문학은 이단자나 비정상적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오랑은 악의 어둠이 소멸하고 빛만 있는 일원성의 세계, 갈등과 다양성이 배제된 사회에서 인간은 살 수 없다고 단언한다.

한편 책을 번역한 김정숙 배재대 명예교수는 “모든 인간의 활동은 유토피아와 반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역사의 본질은 정체가 아니라 끊임없는 생성이다. 변화의 동력은 다양성이며 단절이고 돌발성이다. 변화의 주체는 인간이다”라고 언급했다.

〈책터하우스·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빅뱅의 질문들

토니 로스먼 지음, 이강환 옮김

‘이 책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주제를 다룬 작은 책이다’ 책은 이렇게 시작한다. 사람들은 우주의 가장 처음에 집중한다. 우주가 태어난 직후 1초도 지나지 않은 그 시간, 정확하게 우주의 기원인 ‘빅뱅’을 다루는 ‘우주론’에 호기심을 갖는다.

빅뱅과 블랙홀 관련 주제를 연구해 풀리처상 후보에 오른 물리학자이자 작가 토니 로스먼이 빅뱅을 주제로 한 책을 썼다. 저자는 책을 통해 빅뱅에 관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핵심 질문 15개를 던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한다.

책은 중력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강한핵력과 약한핵력, 전자기력과 함께 자연의 4가지 힘 중 하나인 중력이 제대로 설명된 것은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 처음이다.

일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질은 시공간을 휘어지게 하고 휘어진 정도가 중력으로 표현된다. 이후 1929년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멀리 있는 은하들이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는 하나의 점이었으며 빅뱅 이후 팽창하면서 우주가 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빅뱅이론’이다.

어떤 이론도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고 우주의 시작에 대한 가정은 자연의 상수든 언제나 두 손으로 직접 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 대부분의 우주론자들은 자연의 궁극적 의문을 풀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 아닌 가까이 가기 위해 연구한다고 얘기한다.

저자는 “그러나 걱정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다음 세대의 우주론자들이 격정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한다.

〈한겨레출판·1만 6000원〉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